



오리온
바이오 등
신사업에 투자
L1



Life

편의점
근거리 장보기
거점 부상
L2



자연 품고, 이웃과 손잡고... 피부 너머 아름다운 세상 가꾼다

매일 아침 무심코 바르는 선크림 하나에도 지구의 내일을 고민하는 따뜻한 기술과 현장의 노력이 깊게 담긴다. 국내 최초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시작해 K뷰티 글로벌 신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친환경 공법 도입, 세심한 일터 환경 개선, 지역사회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하며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국콜마

사업장 내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로
작업·휴게공간,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선순환 구조
친환경 포장재 상용화... 탄소 감축
유해성분 배제한 선케어 제형 도입

청년 자립 돕고, 소외계층 아동 후원
긴급구호·위생키트로 이재민 보듬어

대금 조기지급... 협력사 유동성 확보
동반성장펀드 조성, 수출자금 지원도



- 1 비목재로 만든 친환경 포장재 '종이스티크'
- 2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종이튜브'
- 3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임직원들이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우보천리룸에서 '제4회 자율준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4 지난달 13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가운데)와 고대현 소이프로스튜디오 대표(오른쪽),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콜마

◆현장의 목소리로 채운 건강한 일터

한국콜마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생산과 연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한국콜마는 '안전과 보건'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꼽는다. 경영진, 노동조합,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례 회개 사업장 내 작은 불편과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건 제안 제도'와 일상 점검 활동을 대폭 확대해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무려 760건이나 발굴하고 즉각적인 시설 보완 및 프로세스 개선을 완료했다.

대표 사례로 지게차 헤드การ์ด 부분에 설치한 아크릴 보호 커버가 꼽힌다. 물류 현장에서 높은 곳의 적재물을 운반할 때 작업자의 눈에 먼지나 낙하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자체 제작했다. 또 작업장 내 중량물 취급 공정에 모듈형 전동 리프트를 적극 도입해 근골격계 부담을 줄였다. 화학물질 혼합 공정에는 자동식 배기장치를 증설하여 공기 질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사내 휴게 공간 리모델링, 조명 단차 및 조도 개선, 작업장 내 동선 최적화 등을 이뤄내는 등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구와 바다를 살리는 뷰티

환경을 향한 한국콜마의 기술 혁신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 생산부터 폐기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보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장품 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

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콜마는 업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포장재 '종이스티크'를 선보였다. 이 종이스티크 용기는 기존 플라스틱 용기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86%까지 획기적으로 낮춰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인다. 나아가 버려진 종이와 자연 상태에서 더욱 빠르게 분해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감축하는 제조 공정도 갖췄다. 고온의 열을 가하지 않고 원료를 추출하는 비가열식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인 신원료 '에코-펄스 셀룰라'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세계적 권위의 글로벌 화장품 박람회인 '코스모팩 어워드 2025'에서 지속가능성 부문 대상을 수상해 한국콜마의 친환경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도 구체화한다. 자외선 차단제에 자주 쓰이던 특정 화학 성분이 바다로 유입되어 산호초를 하얗게 죽이는 산호초 백화 현상을 막기 위해, 유해 성분을 전면 배제한 리프 세이프 선케어 제형 기술을 도입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사회공헌까지

한국콜마의 성장은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서 온기를 나누고 함께 자라는 동반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콜마는 일회성 성금 전달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시설을 떠

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국콜마는 뷰티 및 조제·생산 관련 직무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장 인근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교육 물품, 건강 먹거리 팩, 맞춤형 영양제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아동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점차 빈번해지는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한국콜마의 발빠른 온정이 빛을 발한다. 집중호우나 대형 산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임직원 봉사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구호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위생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이재민들을 위해 자사에서 생산한 세제제, 기초 화장품 등 위생용품 키트와 구호 성금을 즉각 지원하며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한국콜마의 지속가능경영은 협력사와 공급망 전체를 포용한다. 한국콜마는 자사만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 협력사들이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준에 맞춰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중소 협력회사들이 자체적으로 ESG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 전문가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 지도, 환경 교육은 물론 실질적으로 친환경 공정 도입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돕는다.

금융 정책도 돋보인다. 중소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명절에는 납품 거래 대금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경기 침체로 겪을 수 있는 자금난을 함께 분담한다는 취지다. 협력사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복지 혜택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연계한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한 것도 독보적이다. 화장품 제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정부 주도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출연기업으로 참여해 K뷰티 가치사슬 확장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올해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과 'K0소비재 산업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0개 이상의 중소 고객사 및 협력사가 총 174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금융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보증료 지원, 보증 한도 확대, 최대 3년의 우대 보증 기간, 보증료율 우대 등을 바탕으로 수출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정하 기자 mlse23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테니스 전설' 조코비치, 생애 최초로 US오픈 1회전 탈락
▲최강 중국 넘는다...탁구 신유빈, 2개 대회 연속 금빛 스매시 도전 /사진 뉴시스

▲'즈베즈다 데뷔' 신동 김예건 "우승 많이 하고 싶어"
▲독일 매체 "헤르타 베를린, 홍현석 영입 목표... 선수도 이적 원해"

▲여자축구연맹, 지소연 향한 심판의 성희롱 발언에 "공식 대응 착수"
▲키움, 서건창 다년계약에 특약 추가...2년 최대 6억원→12억원